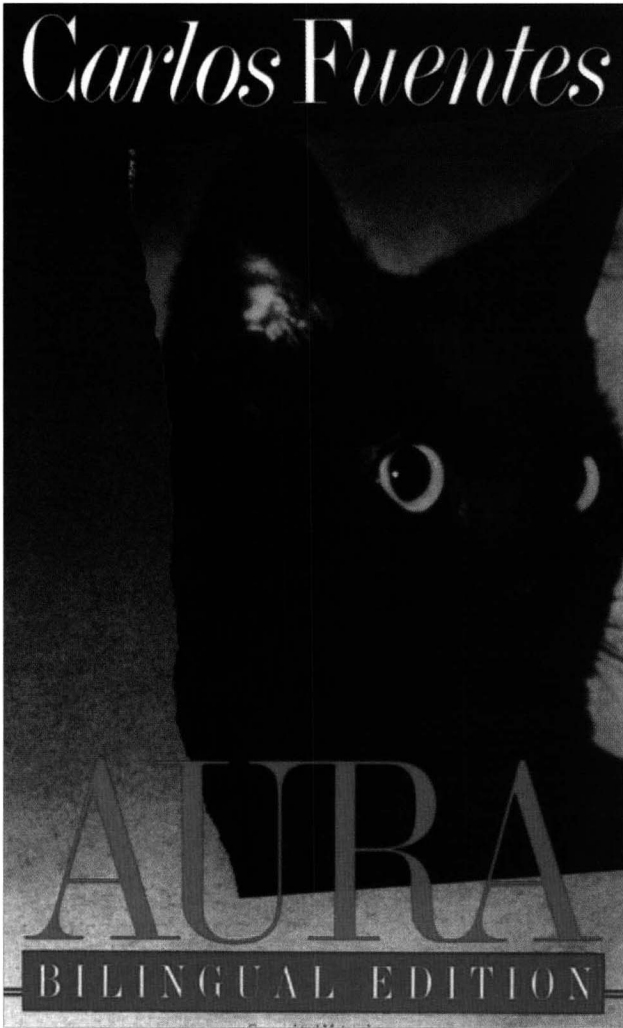


뜻밖의 주제를 발표한 카를로스 푸엔테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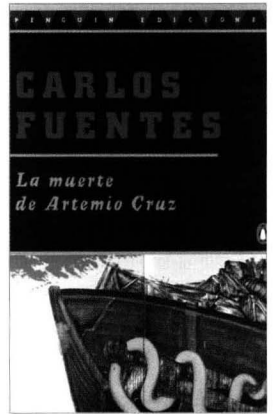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2004 포럼에 나타난 살만 루시디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책 <AURA>



살만 루시디



최근 스페인어권의 출판 문화계에서 회자되는 두 가지 사건은 세계 정치문제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는 멕시코의 카를로스 푸엔테스 Carlos Fuentes(1928~)가 펴낸 단편집이 그의 종래 소설의 주제와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과, 잠행으로 유명한 인도 출신 영국 작가 살만 루시디가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 당당히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는 것이다.

푸엔테스는 우선 76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한 작가의 글쓰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다. 일찍 펜을 놓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국의 박경리 선생(1927~)이나 박완서 선생(1931~),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마르케스(1928~)처럼

70대에도 꾸준히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많이 있으나 푸엔테스의 경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소설 주제에서의 변신에 있다.

단편작가, 소설가, 평론가, 극작가, 정치평론가로 활발히 활약하는 그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유년시절부터 세계 각지를 여행했으며, 이로 인해 중남미 문화와 영미문화권에 동시에 속하는 개성을 갖게 되었고 그 스스로도 어느 한 문화권에 속하기를 거부한다. 소설, 평론, 희곡, 수필 등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글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것,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 멕시코라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느끼는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으로 집약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20세기 중엽의 카오스적인 멕시코 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들의 모습을 거대한 벽화형태로 병치시킨 작품 《La region mas transparente(1958)》, 하층민의 신분에서 상층부의 지배계층으로 도약한 한 남자를 통해 멕시코 혁명과 그 후의 멕시코 사회를 분석한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 La muerte de Artemio Cruz》(1962) 멕시코 혁명 와중에 북부지방의 실권자였던 판초 비야를 만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미국 작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그린 《Gringo viejo》(1985) 《Cristobal Nonato》(1987) 소설이론서인 《Geografia de la novela》 《라틴아메리카 문화사 El espejo enterrado》(1992) 등이 있다.

하비에르 비야루티아Javier Villarrutia상, 알폰소 레예스Alfonso Reyes상, 멕시코 문학상과 같은 멕시코 국내의 저명 문학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출판사 세익스 바랄Seix Barral상, 베네수엘라의 로몰로 가예고스Romulo Gallegos상, 그리고 스페인의 세르반테스Cervantes상과 같은 주요 상들을 수상한 푸엔테스는 매해 9월이면 노벨상의 단골 후보로 등장한다.

그의 최근작은 《Inquieta compañía》로 멕시코 알파과라 출판사가 올 4월에 출판했다. <연극애호가El amante del teatro> <우리 엄마의 고양이La gata de mi madre> <홀륭한 동반자La buena compañía> <칼릭스토 브랜드Calixto Brand> <잠자는 백설공주La bella durmiente> <블라드Vlad>라는 제목의 단편 6편이 수록된 이 책에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존재들, 혹은 현상들로 인해 삶 자체가 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생은 사랑에서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이 사랑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모두를 이용하면서 살고 있고, 여기서 어떤 이는 승리자로 어떤 이는 패배자로 남는다”는 작가의 말대로 주인공들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초자연적 세계, 환상적 세계의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며 극과 극을 오간다. 이것은 “어쩌면 흡혈귀처럼 야행성이며 비밀스런 신이” 미완으로 끝낸 자신의 업보로 인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바로 그 신이 끝내지 않은 업을 인간인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지도 모른다” 즉 신의 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미완성 상태의 세상에서 정리되지 않은 환상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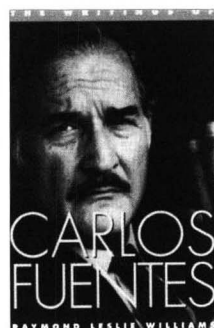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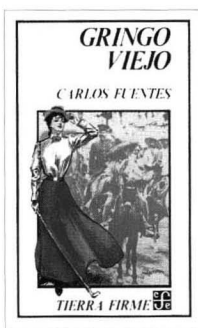
푸엔테스는 왕성한 작품활동 못지않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적극적인 작가다. 허구세계의 글쓰기가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그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대표를 역임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현실참여로 보여줬다. 최근에도 푸엔테스는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타문화권에 대한 야만적 행위로 공박했고, 사무엘 헌팅톤이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 인구의 증가로 미국이 두 개의 문화권으로 양분된다고 주장하자 그것은 인종편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뚜렷이 하며, 그러한 인식 위에서 글쓰기를 해왔다.

그러나 이 단편집은 인생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상적 요소, 불가사의한 요소로 가득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8년도의 멕시코 학생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대통령에게 격려편지를 보내고, 칠레의 피노체트를 공개적으로 두둔한 환상적 사실주의의 대가인 보르헤스를 ‘천치 같은 정치 감각을 지닌 천재적 작가’로 평가한 푸엔테스가 말년의 작품에서 보르헤스 풍의 환상적 사실주의 글을 썼다는 것은 분명 관심을 끈다.

스페인어권 문화계의 또 다른 화두는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41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바르셀로나 2004 포럼’이다. ‘문화적 다양성’ ‘지속적 발전’ ‘평화 조성’ 등을 주제로 내건 이번 포럼은 바르셀로나 광장 및 미술관 등에서 열리는 총 20여 개의 전시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루어지는 난상토론, 대규모 음악회, 연극, 거리 퍼포먼스, 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서커스, 저명인사 강연 등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의 유품들이다. 특히 진시황의 무덤에서 출토된 병사들의 모습은 스페인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지 매체는 진나라 시대의 장군, 궁수와 함께 묘기부리는 사람, 무기 등과 한



Carlos Fuentes y los héroes

JAVIER CERCAS

En los años sesenta empezó a darse a conocer por aquí una serie de escritores que iban a poner patas arriba la narrativa contemporánea. Venían de América. Estaban poseídos por una ambición destinada: querían ser al mismo tiempo Tolstói y Faulkner, Proust y Balzac. Excepto miedo, lo tenían todo: eran jóvenes, y revolucionarios, y cosmopolitas, y cultos, y guapos como galanes latinos de paso por Hollywood y, años más tarde, a la gente de mi edad nos sacaron de la adolescencia de un patadón y nos metieron en la cabeza la idea insensata de ser como ellos, de hacer libros y revistas, cosas. Eran los héroes. Carlos Fuentes fue uno de ellos. A Fuentes le debemos un puñado de novelas descomunales; la última se titula *Los años con Laura Díaz*, y el lunes se presentó en la Universidad de Barcelona.

Así que voy a la universidad a ver a Fuentes. En la puerta, una anciana idéntica a la abuelita Paz me confunde con un conserje y me pregunta dónde se presenta el libro de Fuentes. Se lo digo. Llego al Aula Magna. En seguida aparece la abuelita Paz y se sienta a mi lado. Un poco nervioso, la veo sacar un libro —*La sonata a Kreutzer*, de Tolstói— y ponerse a leer. Luego se me acerca Noemí Montetes, que es profesora de la universidad, lleva un libro de Balzac, *La prima Bettie*, y se sienta a mi lado. De repente se me ocurre que es bastante raro haber venido a oír a Fuentes, que quiere ser Tolstói y Balzac —y también Proust y Faulkner—, y verme encerrado entre dos mujeres que leen a Tolstói y a Balzac, pero no a Fuentes. En ese momento aparece Fuentes. Sigue siendo culto y cosmopolita y hasta guapo, pero ya no es joven; tiene aire de galán otoñal: el pelo casi

gris; en algún momento da la impresión de que va a levantarse y ponerse a bailar. Todo el mundo lo mira perplejo; la abuelita Paz también. Cuarenta minutos más tarde, Fuentes sigue con su recital. En ese momento, oigo decir a la abuelita Paz: "Bé, ja n'este tipa, de la Laura Díaz". La gente se vuelve y me mira; me ruborizo, pero de inmediato reacciono y, sin el menor escrúpulo, señalo con un dedo acusador a la anciana, que se levanta y se larga. En un instante de pesadilla, imagino que la gente empieza a marcharse y yo acabo quedándome solo en el Aula Magna, mientras Fuentes sigue recitando incansablemente. Por fortuna, me equivoco: como si también él hubiese oído a la abuelita, Fuentes acaba su *show* y el público se pone en pie para aplaudirle, igual que si fuera un actor de Hollywood.

Al acabar el acto la gente se arremolina en torno a Fuentes. En algún momento, veo a Noemí Montetes y a Fuentes cantando a dúo una canción mixteca, y luego aparece Enrique Turpin y me dice que la única revista que he contribuido a montar en toda mi vida acaba de irse al garete. Para levantarme la moral —y supongo que también con la secreta intención de que se me pegue algo—, Merche Serna y María José Sánchez Cascado me invitan a cenar con Fuentes. Por supuesto, me acuerdo de Proust, que decía que un aprendiz de escritor que se acerca a un gran escritor con la idea de aprender algo es como un enfermo que sale todas las noches a cenar con su médico con la idea de que así va a curarse; pero acabo aceptando. Mientras esperamos, alguien menciona el hecho de que a Fuentes acaba de morirse un hijo, alguien elogia la entereza de Fuentes. Enton-

En los sesenta llegaron una serie de escritores que iban a poner patas arriba la narrativa contemporánea. Venían de América. Carlos Fuentes fue uno de ellos. Y el lunes presentó en Barcelona su última novela: 'Los años con Laura Díaz'

tan a cenar con Fuentes. Por supuesto, me acuerdo de Proust, que decía que un aprendiz de escritor que se acerca a un gran escritor con la idea de aprender algo es como un enfermo que sale todas las noches a cenar con su médico con la idea de que así va a curarse; pero acabo aceptando. Mientras esperamos, alguien menciona el hecho de que a Fuentes acaba de morirse un hijo, alguien elogia la entereza de Fuentes. Enton-

푸엔테스는 왕성한 작품활동 못지않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적극적인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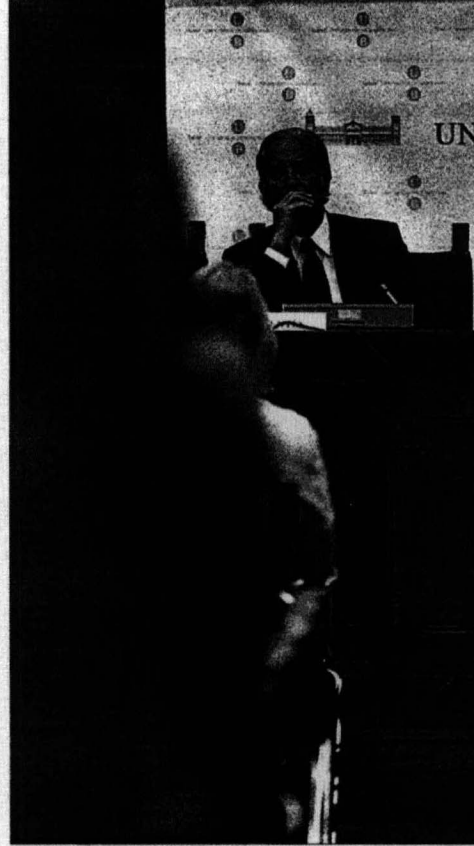
나라 시대의 알몸을 드러낸 두 남자의 모습을 그린 도자기와 가족들의 모습에 찬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 포럼은 귀한 손님 하나를 맞았다. 바로 《악마의 시》의 저자인 인도출신 영국 작가인 살만 루시디다. 5월 중순에 이루어진 '언어의 가치'라는 주제의 좌담에 초대된 루시디는 정치권력이 신문기자나 작가에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정치권력은 비단 전체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적인 서구사회에도 존재한다고 말

했다. 《악마의 시》로 이슬람계의 저주 대상이 되었고 암살대상자로 손꼽힌 루시디는 일반인들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동안, 권력은 더욱더 비민주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은 반테러 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만 테러가 계속 존재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루시디는 테러와 안전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입지가 더욱더 좁아들고 있으며, 작가들은 현 세계의 힘의 변증법적인 상황을 조명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는 우리네 화두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지식인, 특히 문인들의 현실참여, 정치참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활약한다거나 거리행진

에 참여한다거나 자신의 지지정당을 밝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후보가 되는 방식으로 표출된 이들의 정치참여를 놓고 한편에서는 본분을 잊은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편에서는 이들의 관심세계가 현실을 떠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인, 특히 소설가의 경우, 소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현실세계이며 '구미넨 이야기'가 '그럴싸한 이야기'가 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니 정치에 대한 작가의 의견은 왕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작가의 활발한 현실참여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떠나, 작가 역시 하나의 인간이므로 자신을 에워싼 사실의 세계를 반드시 소설의 형식을 빌려 비판하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한다는 것은 작가가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



Carlos Fuentes lee un pasaje de su novela; más que leerlo, lo recita. / JOAN GUERRERO

Feliz, me despatarré en el sofá y pongo la tele; le oigo decir a Lloïl Bertrán: "Entre la pena y la nada, elijo la pena". Como yo no sabría qué elegir, y como además me parece miedo de Fuentes y en la entereza de los, en que él no puede elegir entre la nada y la nada, porque la nada y la pena le p... cen por igual. Pienso que un héroe



살만 루시디의 책들

이 글을 쓴 고혜선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인스티투토 카로 이 쿠에르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 오리건 주립대학교 스페인어과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동서양문학에 나타난 거울의 이미지 *El espejo en la Lit. Occidental*》(페루) 《메스티소의 나라들》 등이 있으며 《마당 깊은 집》 《고기잡이는 갈 대를 꺾지 않는다》 《아베의 가족》 《젊은 날의 초심》 등 우리 소설을 스페인어로 옮겼다.

고혜선 | 단국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